

문화연구의 발전과 방향

박 상 기 |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가고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을 한다. 20세기 말 냉전의 종식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는 미국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자본주의의 승리'를 주장하는 축제 무드 속에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전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개편하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과 함께 기술과 자본의 우위를 가진 할리우드의 상업문화는 세계의 대중문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성공은 문화산업이 돈이 되는 장사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고, 우리나라도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래의 중점산업으로 육성하려 한다.

전지구화 시대에 문화의 경제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무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기업들은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현지화는 전지구화 시대의 중요한 사업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유용성 외에 문화는 미국 위주의 전지구화에 대한 지역 문화의 저항이라는 형태로 비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전지구화 현상은 활발해진 국가간의 교류와 함께 여러 가지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헌팅턴은 이데올로기 전쟁을 대체하는 '문명충돌론'을 주장한다.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현대 사회를 변화시켜 왔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혁명은 국가간 그리고 국내 여러 영역의 장벽을 순식간에 허물어 현대 사회에 급속한 변화와 엄청난 다양성을 발생시켰다. 이런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문화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I. 종합학문으로서 문화연구

'문화학'과 '문화연구' 두 용어는 cultural studies를 번역한 것으로 두 가지 다 현재 사용되고 있다. women's studies를 여성학으로, American studies를 미국학으로 번역한 통례를 따른다면 당연히 문화학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학'으로 학문적 체계를 갖추려면 연구 대상, 연구 방법론 그리고 연구의 역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화학'으로 불러지기에 세 가지 요건 모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기

*지난 호(제 105호~제 116호)까지 게재하였던 "학문의 초석" 칼럼에 뒤이어 "새로운 학문 분야" 칼럼은 오늘날 대학사회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첨단 학문을 소개함으로써 대학인들의 학문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 편집실 -

때문에 문화학보다는 문화연구라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제일 문제가 적은 부분은 연구의 역사이다. 현대적 의미의 문화연구는 1950년대에 영국의 버밍햄 센터에서 시작되었다. 호가트, 윌리엄스 그리고 홀이 주도했던 문화연구는 버밍햄 센터의 정식 명칭인 '현대문화연구소'가 말해 주듯이 주로 현대의 대중문화, 특히 소외된 노동자 계층의 문화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후에 내부에서의 비판을 수용하여 그 연구 영역을 여성문화, 청소년문화 그리고 소수민족문화로 확산하였다. 그러나 문화연구는 193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학과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상업화된 수동적 소비 위주의 대중문화를 비판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영국의 문화연구는 대중문화의 저항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연구의 역사에서 볼 때 문화연구는 다른 학문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다.

문화연구는 어떤 학문보다 연구 대상에서 연구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드러낸다. 문화라는 용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디에서나 사용되고 있다. 운전문화, 식생활문화, 주거문화, 음주문화, 인사문화 등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만큼 정의되지 않고 남용되는 것도 드물다. 문화는 본래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거나 경작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의 '마음의 밭을 가꾼다'라는 표현에서처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개발하는 의미가 유추되었다. 그 후에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하는 근거로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면을 강조하여 예술의 완성도나 도덕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문화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현대의 인간만큼 문화를 습득하는 교육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존재는 없었다. 현대인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력을 상승시켜야

하고 이제는 일반적으로도 '평생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만큼 살아가는 데 알아야 할 것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인간의 특성이 된 문화는 다시 야만과 문명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인종간의 구별을 위해 사용되었다. 문화적 차별은 식민지배나 '인종청소'에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문화는 지역, 학벌, 성별, 연령 등 세분화된 집단의 특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차별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어쨌든 문화는 어떤 형태로든 한 개인의 습관이 아닌 한 사회 집단의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한 집단의 문화는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습득되어 전해진다. 한 마디로 문화는 예술, 정치, 경제, 역사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이런 까닭에 연구 대상으로 문화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문화연구는 학문적 분야로서, 연구 방법론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물론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연구가 의도적으로 '분과적' 학문으로서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분과학문의 방법론을 필요에 따라 차용하는 데 있다. 문화는 연구 대상 자체가 총체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분과적' 접근을 반대하는 '반분과적' 성격을 보인다. 예를 들면, 기존의 영문학 연구에서 낭만주의는 주로 몇몇 중요한 낭만주의 시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블레이크는 산업혁명의 비인간화를 비판하였고, 워즈워드는 프랑스대혁명의 민주정신을 찬양하였다. 즉 낭만주의는 무엇보다도 산업혁명의 결과인 비인간화에 대한 반발이고 독일의 이상주의와 프랑스 대혁명 등 일련의 사

“

문화연구는 복잡한 현대 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고전과 현대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학문을 총동원하여
인간의 총체적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하나의 연구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학문적 영역을 넘나드는 자유로움을 강조한다.

”

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광범위한 문화적 현상이었다. 그런 까닭에 낭만주의는 사회적 현실이 다른 각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띠게 되고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건축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또한 문학 작품을 쓸 때 작가는 자신의 삶과 사회 변화의 여러 면을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다른 작가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제인 등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 교류하며, 그의 삶은 예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여러 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급속히 변하고 다양해진 현대 사회와 그 속에서 사는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을 총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까닭에 문화연구는 여러 영역을 연관지어 연구하는 '학제적' 성격을 갖는다.

문화연구가 학제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인간 관계의 여러 면을 포함하는 문화가 종합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 외에 현대의 사회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흔히 현대 사회를 '탈경계적' 포스트모던 사회로 규정한다. 현대 사회는 여러 영역을 뛰어넘고 파괴하는 매우 급진적 변화와 엄청난 복잡성을 보이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이다. 기존의 직업은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 직장은 부서 위주에서 팀 위주로,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생

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는 '포스트포디즘'이 주도한다. 전지구화된 노동 분업은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맞춰진 다양한 생산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생산력의 유연성을 요구한다. 현재 소비 방식 또한 국경을 넘는 패션, 퓨전 음식, 크로스오버 음악과 31가지의 다양한 맛을 가진 아이스크림이 전 세계의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적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II. 실천학문으로서 문화연구

문화연구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실천성을 강조한다. 영국의 문화연구는 상업화된 주류의 대중문화에 저항하는 소외된 계층의 문화, 즉 노동자계급의 문화를 그리고 나중에는 청소년문화, 여성문화, 소수민족문화 등을 연구하여 초기부터 실천학문으로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문화연구는 중세연구, 르네상스시대연구 등 시대연구와 서유럽연구, 동아시아연구 등 지역연구 그리고 여성학, 소수민족문화연구 등 주제연구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모두 각 시대나 지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에서 소외된 사회집

단의 문화적 저항과 생존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연구의 정치적 실천성을 잘 나타낸다.

문화연구의 실천성은 문화연구의 위상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연구에 대한 오해는 주로 유물론적 경제환원주의의 편견에서 발생한다. 흔히 문화를 배가 부르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하는 여가 선택의 방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달리 문화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많은 중요한 사회적 갈등, 즉 종교적, 인종적, 지역적 심지어는 직업과 주거지에 근거한 갈등을 야기한다. 문화를 예술활동 같은 좁은 의미에서 생활방식 같은 넓은 의미로 확대시켜 생각해 보면 문화는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미 체계와 가치 체계를 제공하는 생활 방식이다.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나의 존재나 내가 속한 집단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문화에 의한 정체성 혹은 주체성 형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연구의 의미와 가치 체계에 관한 연구는 인간관계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매우 차별적인 권력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문화에 숨겨진 권력 관계를 밝힘으로써 문화연구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정립하는 정치적 실천을 강조한다.

영국의 문화연구가인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문화연구의 정치적 실천성을 잘 설명한다. 그는 문화를 정신적, 물질적, 지적, 영적인 면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생활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인류학적 문화관을 펼친다. 그의 '문화적 유물론'은 기존 마르크시즘의 단점으로 문화를 포함한 상부구조를 물질적 기반의 결과로 보는 경제적 환원주의를 비판

하고 이 둘의 상호관계를 보다 동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마르크시즘에서 경시되었던 사회 형성에서 차지하는 문화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문화는 인간관계의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문화는 일상적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윌리엄스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산업 비판에 내재하는 엘리트주의를 비판한다. 이를 통해 문화는 더 이상 소수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된다. 또한 문화 소비자로서 대중은 더 이상 주어진 문화 상품을 아무 저항 없이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된다. 그의 '장구한 혁명'에 관한 주장이 보여 주듯이 윌리엄스는 보통 사람들에 의한 대중문화의 민주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III. 문화연구의 방향

현재 문화연구는 대중문화의 확대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연구의 인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대 대중매체의 위력과 할리우드 영화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문방송학과의 인기 상승은 자본주의의 팽창의 결과로 인기를 누리는 경영학을 제외하고는 현재 쇠퇴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인문사회계 학문에서 예외적인 현상이다. 대중문화의 발달은 문화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인문사회계 학과를 문화연구로 바꾸거나 문화연구와 관련된 학과를 새로 개설하는 '붐'이 일고 있다. 문화연구가 연구소나 대학의 하

나의 학과로 제도화되는 것은 연구비, 연구 시설, 교육제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학과의 변환이나 새로운 학과의 개설은 기존 연구자의 교육과 연구 영역을 침범하는 위협으로 느껴지고 그에 따른 저항을 받고 있다. 또한 문화연구의 특성인 학제적 연계성이 사회 변화에 적합한 유연성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기존의 분과적 교육 체제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연구의 장점인 실천성은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해지는 위협성을 안고 있다.

문화연구는 종종 기존의 순수학문을 상업화하고 대중화하는 천박한 학문으로 오해받는다. 문화연구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경박성을 보이는 신세대를 위해 대중음악이나 오락영화를 틀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엘리트주의적 태도는 사회 변화의 결과로 등장한 신세대에 대한 기존 세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편견을 드러낸다. 또한 문화연구는 복잡한 현대 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고전과 현대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학문을 총동원하여 인간의 총체적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연구는 기존의 분과학의 연구 방식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소외되어 있는 분과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려는 것이다. 즉 문화의 총체적 연구와 이해를 위해 분과적 영역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초분과적' 성격을 갖는다. 문화연구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하나의 연구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학문적 영역을 넘나드는 자유로움을 강조한다. 그런 까닭에 학문적 깊이가 없는 전문성의 결여나 학문적 체계가 전혀 없는 무질서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연구는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잃지 않고 문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문화연구는 그 발생 과정의 특성 때문에 주로 서구의 연구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마치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많은 학문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당시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생겨났듯이 문화연구는 20세기의 급변하는 사회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서구의 문화연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서구의 발전 과정을 따르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의 개발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연구가 현대의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 사회의 문화 현상 특히, 많은 경우 현대 사회의 특징인 대중매체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과거의 문화적 유산과 타문화와의 교류 없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연구의 범위를 과거 문화와 타문화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총체적 학문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

박삼기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영문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호미 바버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탈식민주주의의 양가성과 혼성성”, “타자의 역사성 : 『위대한 유산』에 나타난 계급, 성, 인종의 담론” 등이 있다.